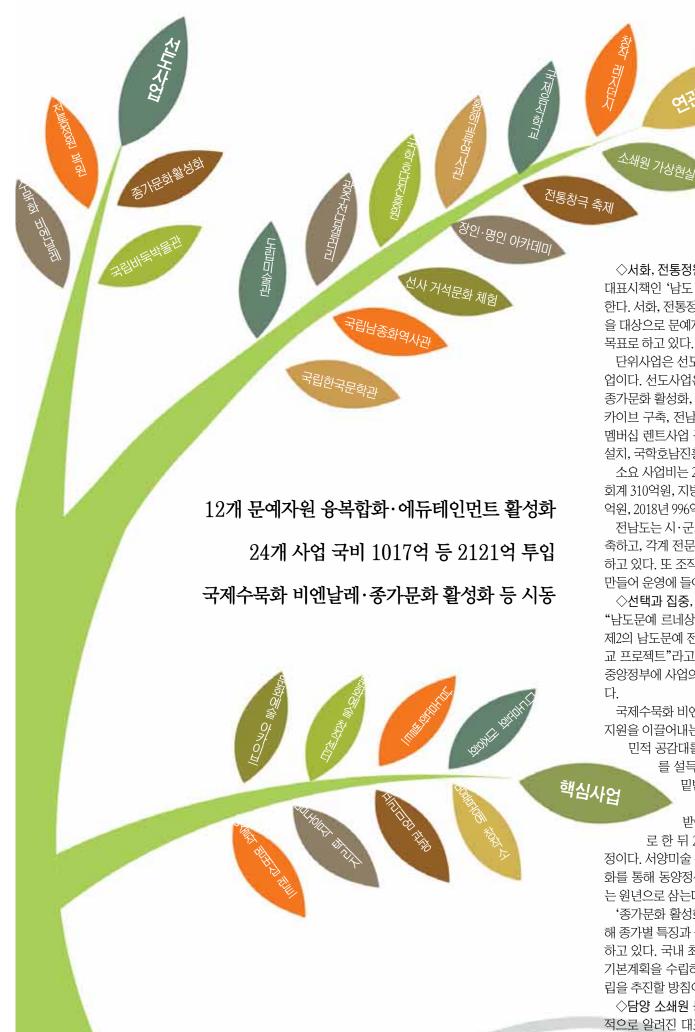
광주일보 2017년 1월 2일 월요일 청요일 청사 65년 ३ 사해 특집 제20404호 17

서화·정원·판소리·음식…전남 문예자원 창조적 재생 나선다



전남도 남도문예 르네상스 본격 추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며 남긴 문화예술이 그 어느지역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전남도가 문화예술자원의 창조적 재생에 나선다. 오랜 역사를 품고 있으나 부각되지 못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회자되지 못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남 도의 문예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생이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 연 계를 통한 창조적 시도를 더해 지역발전의 계기 및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서화, 전통정원 등 12개 우위자원 융·복합=전남도가 민선 6기 후반기 대표시책인 '남도 문예 르네상스(Renaissance)'를 2017년부터 본격 추진 한다. 서화, 전통정원, 바둑, 종가문화, 음식, 문학, 판소리 등 12개 문예자원을 대상으로 문예자원 융복합화, 에듀테인먼트 활성화 등에 나서는 것을 그목표로 하고 있다.

단위사업은 선도사업 4개, 핵심사업 8개, 연관사업 12개 등 모두 24개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전남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개최, 한국 전통정원 조성, 종가문화 활성화,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이다. 핵심사업은 전남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전남 문화예술 창작센터 설립, 남도문학벨트 조성,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 등, 연관사업은 도립미술관 건립, G&J 광주전남 갤러리설치, 국학호남진흥원 설립, 황해역사교류관 건립 등이다.

소요 사업비는 2121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017억원, 지역발전 특별 회계 310억원, 지방비 79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억원, 2017년 251 억원, 2018년 996억원, 2018년 이후 835억원이다.

전남도는 시·군, 유관기관, 예술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 조직개편으로 각 부문 간 가교역할을 할 '남도문예' 전담팀도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다.

◇선택과 집중, 4개 선도사업 이미 '시동' =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남도문에 르네상스는 전남지역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현대적으로 승화해 제2의 남도문에 전성기를 이끌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과거와 미래 가교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예산을 분배하고,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수묵화 비엔날레 등 4대 선도사업을 서두르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우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내 및 전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부처 를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중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밑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수묵화 비엔날레'는 우선 2017년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한·중·일 등 동양권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교류전 형태 로 한 뒤 2018년에는 국제적 규모의 정식 비엔날레로 승격시킬 예 서양미수 의주의 기존 비엔낙레의 전병하철 스무하의 민주하나세계

정이다. 서양미술 위주의 기존 비엔날레와 차별화해 수묵화의 대중화·세계 화를 통해 동양정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면서 또 다른 한류열풍을 일으키 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종가문화 활성화'는 지난 6월 '종가회' 구성한 후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

· 경기문화 활성화 는 시단 6월 '경기회 구성한 후 하면기 선구소사들 동해 종가별 특징과 실태를 파악했으며, 고택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국내 최초가 될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기원과 협력해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양 소쇄원 등 대표 정원 네트워크 구축=전국적,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 전남 문예자원인 담양 소쇄원 등 정원과관련된 선도사업 '한국전통정원 활성화'는 이미 그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15일 분야별 전문가와 시·군 관계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서재필실에서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남도의 전통정원 담양 소쇄원 전경.

연구용역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과 한국전통조경학회는 활성화 핵심과 제로 크게 거점별로 영역을 구분하고, 전통·인문 소재를 주변 정원자원과 연계해 기존 전통정원을 활성화하는 것과 신규 남도정원을 조성해 궁극적 으로는 정원도시 전남을 구현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활성화 방안으로 각 정원을 3개의 구역(Zone) 즉, 핵심거점영역·주변둘 레영역·문화경관영역으로 구분하고, 정원 관련 인물 관계도와 스토리텔링, 관련 시화 등 풍부한 인문학적 소재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변의 누정, 고택, 사찰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대규모 투입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지만, 시설 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늠할 전망이다. 국비 지원을 약속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남도와 각 시・군이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화예술사업'에 가용예산의 상당부분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광, 문화콘텐츠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정부분 성과를 담보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지 못한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커지고 있다.

또 교류관·박물관 등 운영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문화시설 설치에 초기 사업이 집중되면서 미래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미 2000년 이후 들어선 도내 박물관, 문학관 등 문화시설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 신규시설들마저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할 경우 시·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